

‘뉴스 속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

언론 신뢰 높을수록 ‘사실-의견’ 구별 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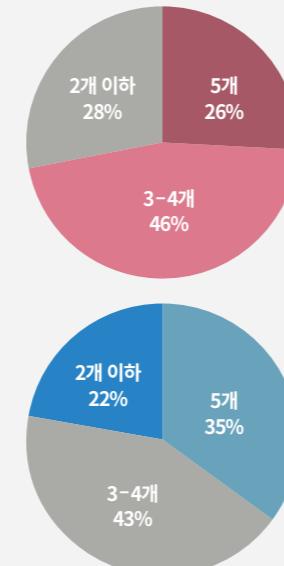
이지영 / 호주 캔버라대 뉴스미디어연구센터 연구원

뉴스 리터러시는 뉴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은 뉴스를 제대로 읽고 있을까?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최근 미국 성인 5,03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뉴스 속 사실과 의견 식별 능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성인들의 리터러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리터러시가 높은 집단은 누구일까? ‘뉴스 속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Distinguishing between factual and opinion statements in the new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열 명 중 일곱 명 ‘사실과 의견 구분’

연구자들은 설문 참여자에게 사실문 다섯 개, 의견문 다섯 개를 제시한 뒤 각각의 문장이 사실문인지 의견문인지를 구별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는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설문 참여자들의 정치적 의식 정도, 디지털 능력, 뉴스 신뢰도, 뉴스 흥미도, 지지 정당에 대한 조사도 포함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들이 사실문, 의견문 각 다섯 개 중 적어도 각각 세 개에 대해 정확하게 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실문의 경우 다섯 개 사실문을 모두 맞힌 응답자가 전체의 26%였고, 네 개를 맞힌 응답자는 24%, 세 개 21%, 두 개 이하 28%로 나타났다. 한편 의견문의 경우, 다섯 개 정답률은 35%, 네 개 24%, 세 개 19%,

그림1 사실문(위) 대 의견문(아래) 정답률 비교



〈출처-'Distinguishing between factual and opinion statements in the news'〉

두 개 이하 22%로 나타나 세 개 이상 정답률을 비교해보면 의견문(78%)이 사실문(71%)보다 약간 높았다. [그림1]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각 문장별 정답률을 살펴보자. 먼저 다섯 가지 사실문 중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President Barack Obama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를 ‘사실문’이라고 정확하게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이 7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미국

그림2 정치의식 수준별 문장 식별 능력

	사실문			의견문			각 수준별 미국 성인 비율
	5개	3~4개	2개 이하	5개	3~4개	2개 이하	
높음	36%	48%	16%	44%	39%	17%	34%
보통	24%	49%	28%	32%	44%	24%	38%
낮음	17%	38%	45%	29%	45%	26%	28%

〈출처-'Distinguishing between factual and opinion statements in the news'〉

그림3 디지털 능력별 문장 식별 능력

	사실문			의견문			각 수준별 미국 성인 비율
	5개	3~4개	2개 이하	5개	3~4개	2개 이하	
높음	35%	45%	20%	44%	39%	17%	48%
보통	20%	50%	31%	31%	47%	22%	34%
낮음	13%	42%	45%	21%	44%	34%	17%

〈출처-'Distinguishing between factual and opinion statements in the news'〉

내 불법 이민자들은 헌법에 따라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Immigrants who are in the U.S. illegally have some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라는 문장을 ‘사실문’이라고 맞힌 비율은 54%로 가장 낮았다. 의견문의 경우, ‘낙태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이어야 한다(Abortion should be legal in most cases)’는 문장을 ‘의견문’이라고 맞힌 비율은 80%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불법 이민자들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이다(Immigrants who are in the U.S. illegally are a very big problem for the country today)’는 문장을 ‘의견’으로 구별한 비율은 68%로 가장 낮았다. 사실이건 의견이건 불법 이민자와 관련된 항목에서 미국인들의 뉴스 리터러시가 다소 낮게 나온 점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정치의식-디지털 능력-뉴스 신뢰도-뉴스 흥미도¹

정치의식이 높고 디지털 환경에 좀 더 익숙한

응답자일수록 사실문과 의견문에 대한 식별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문의 경우 정치의식이 높은 그룹(High)은 36%가 다섯 개 문장 모두에서 정확하게 응답한 반면, 정치의식이 낮은 그룹(Low)에서는 17%만이 다섯 개 모두를 정확하게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의견문의 경우도 정치의식이 높은 그룹의 다섯 개 문장 모두에 대한 정답률이 44%인 반면, 정치의식이 낮은 그룹의 경우 다섯 개 모두를 맞힌 비율은 29%에 그쳤다. [그림2]

디지털 능력 또한 응답자들의 문장 식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먼저 사실문의 경우 인터넷 및 디지털 기기 이용 자신감이 높은 그룹(Very savvy)은 35%가 모든 문장에 정확하게 응답한 반면, 낮은 그룹(Not savvy)은 13%에 그쳤다. 의견문의 경우 디지털 능력이 높은 그룹의 다섯 개 모두 정답률은 44%, 낮은 그룹의 다섯 개 모두 정답률은 2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그림3]

뉴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응답자들은 사실문과 의견문을 더 정확하게 구별했다. 예를 들어, 뉴스 신뢰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39%가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사실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뉴스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섯 문장을 다 맞힌 비율은 18%에 그쳤다. 의견문의 경우 사실문과 비교해 다소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여전히 신뢰도가 낮은 집단의 다섯 문장 정답률(30%)이 높은 집단(43%)과 비교해 낮았다.^[그림4]

한편 뉴스 흥미도의 경우, 정치의식 수준 및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사실문의 경우 앞의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뉴스 흥미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다소 높은 정답률(32% 대 24%)을 보여주었지만, 의견문의 경우 오히려 뉴스 흥미도가 낮은 집단의 정답률(39%)이 높은 집단(36%)에 비해 약간 높았다.^[그림5]

뉴스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응답자들은 사실문과 의견문을 더 정확하게 구별했다. 예를 들어, 뉴스 신뢰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39%가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사실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뉴스 신뢰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섯 문장을 다 맞힌 비율은 18%에 그쳤다.

그림4 뉴스 신뢰도별 문장 식별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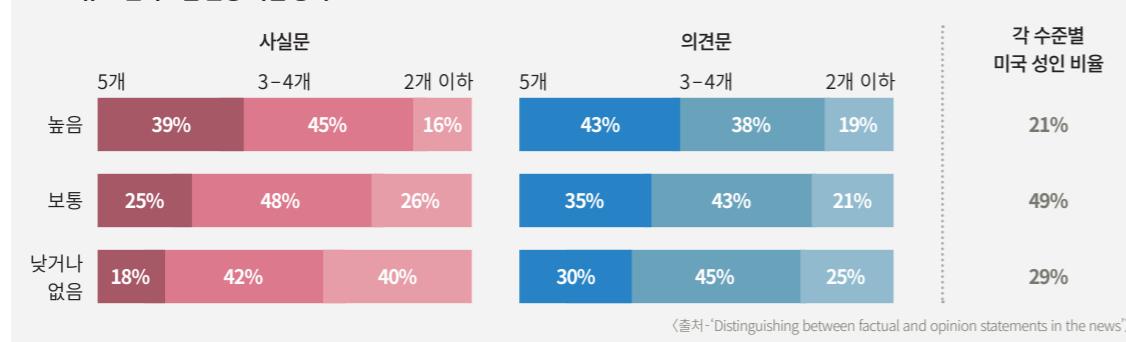


그림5 뉴스 흥미도별 문장 식별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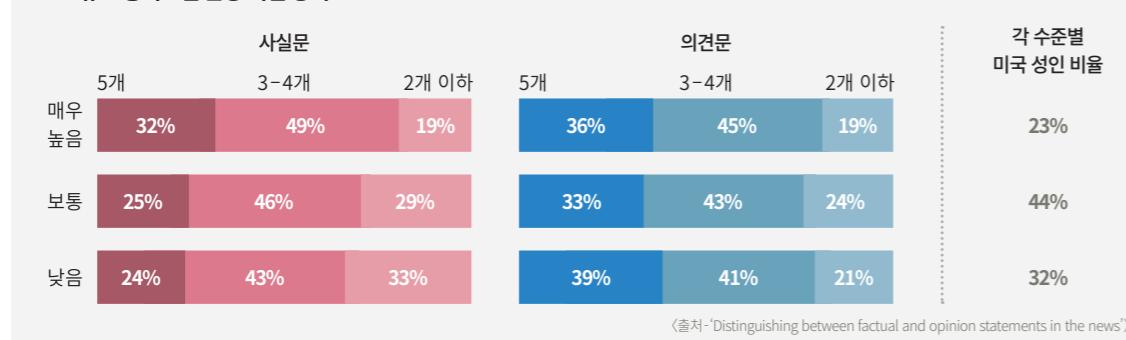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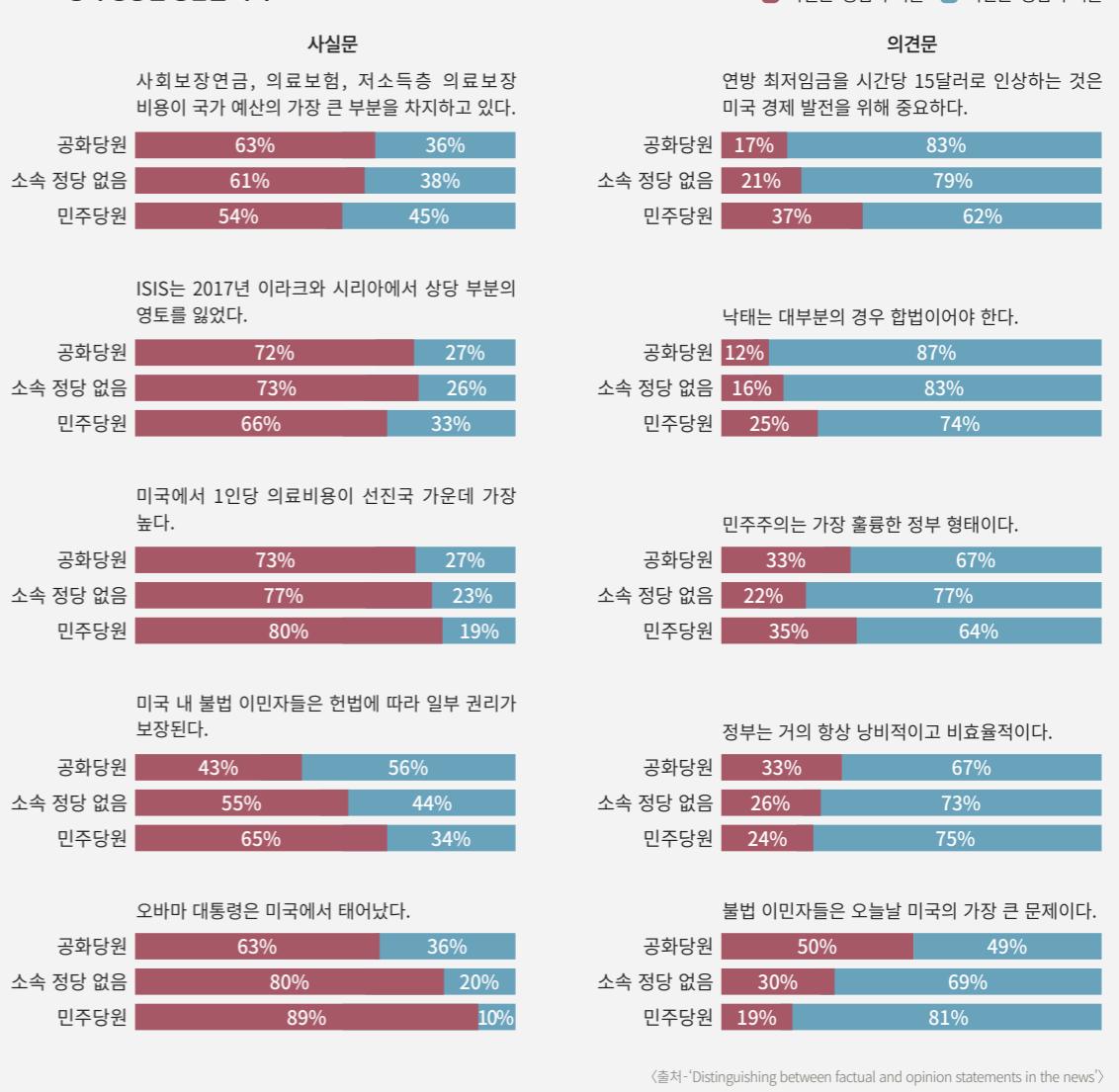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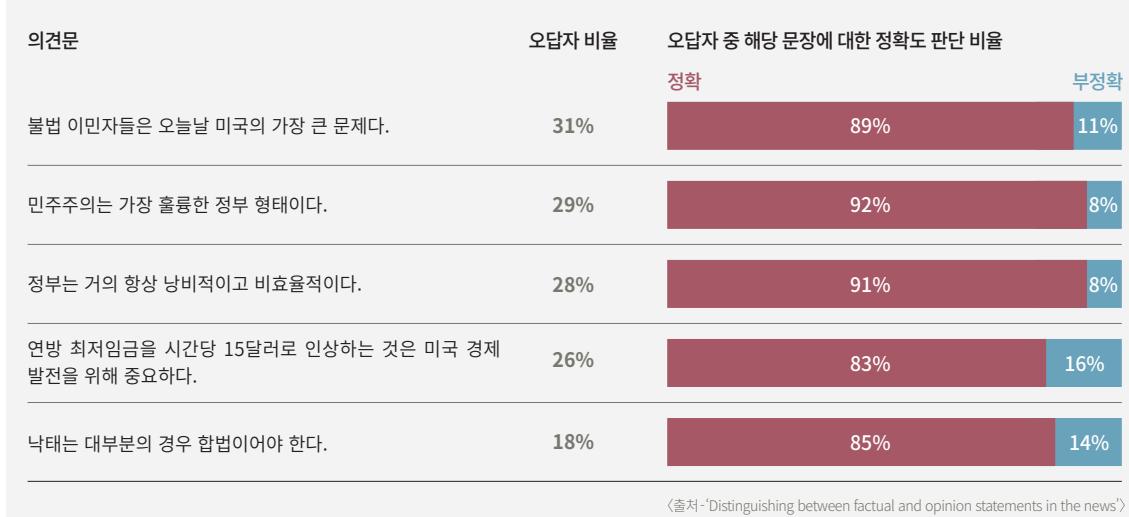
그림6 정치 성향별 정답률 차이



또는 의견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대체로 사실문을 정확하게 맞혔지만, 민주당 친화적인 의견문이 제시됐을 때 사실문이라고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화당 지지자의 경우도 공화당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문을 사실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 친화적 의견문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사실문('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과 불법 이민자 관련 사실문('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헌법에 따라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이 두 문장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의 정답률은 각각 89%와 65%인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정답률은 각각 63%와 4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견문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Increasing the feder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is essential to the health of the US economy)'라는 문장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의 37%는 사실문이라고 잘못 응답한 반면, 공화당

그림7 의견문을 사실문으로 오인한 응답자들의 문장 정확성 평가



〈출처-'Distinguishing between factual and opinion statements in the news'〉

지지자의 오답률은 17%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이민자들은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문장을 정확하게 의견문이라고 맞힌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81%였고 공화당 지지자의 정답률은 49%에 그쳤다. [그림6]

문장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실문과 의견문에 대한 식별에 있어 응답자들은 자신들이 ‘사실문’이라고 응답한 진술문의 내용이 정확한지(accurate) 혹은 정확하지 않은지(inaccurate) 판단해달라는 추가 질문을 받았다.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의견문을 사실문이라고 잘못 답한 응답자를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 의견문을 ‘정확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가장 훌륭한 정부 형태이다’라는 의견문을 사실문이라고 잘못 응답한 비율은 28%인데, 이들 중 무려 92%가 이 문장을 정확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낙태에 관한 의견문 역시 사실문이라고 잘못 답한 응답자들 중 85%가 해당 진술문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7]

한편 사실문을 의견문으로 잘못 인식한 응답자들의

경우, 해당 문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은 헌법에 따라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는 사실문을 의견문으로 잘못 응답한 44%의 응답자 중 대부분(72%)이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문을 의견문으로 잘못 응답한 사람들 중 73%가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이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 이러한 진술문을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의 중요성이 여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보의 형태를 식별하는 능력과 더불어 해당 정보를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능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다시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

1 정치의식: 정치 지식 관련 세 개 문항 및 정치 뉴스 이용 정도.

디지털 능력: 인터넷 이용 정도 및 디지털 기기 이용 자신감.

뉴스 신뢰도: 국내 뉴스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

뉴스 흥미도: 뉴스 관심 정도 및 여가시간 뉴스 이용 여부.